

쫄림쫄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몇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그냥 한 줄 짜리 기도제목으로 드려서는 제대로 된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어느날, 오토바이(고아원 공무용)의 백미러(양쪽 거울)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둑맞았다고 해야겠네요. 그게 항상 건물 안에 주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외부인의 소행일리는 없고, 내부인의 소행인데, 참 속상했습니다. 도둑질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 나라, 너희들의 조국 캄보디아를 망하게 하는 짓이라고 설교로, 잔소리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요. 어쨌거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었그제 탈 때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그게 정품은 \$20 이상 한다고 하니, 떼다 중고로 팔면 \$10 정도 벌이는 되려나요. 도대체 누가 그걸 떼어갔는지 모르지만,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경고를 담은 권면을 했습니다. 하루이틀 기한에 돌려 놓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제자리에 돌려 놓으라고 말이지요. 기한이 다 되도록 거울이 제자리에 안 오길래 벌써 팔아 치웠군 싶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온다는 메시지를 주기로 작심을 하고 범인을 찾기로 했지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는데, 범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열쇠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관리인(현지인)이 그걸 떼어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음미...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게다가 또 하루이틀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더라는 소문이 애들 사이에 짹 퍼졌습니다. 애들도 범인을 다 아는 마당에, 애도 아니고 어른이 도둑질을 했는데 한두마디 경고로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불러다가 직접 물었고, 해명도 영 납득이 되지 않아서, 결국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메시지가 던져진 두세 주 후에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독한 아이들은 프놈펜에 새로 생긴 동물원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말지요. 3 주동안 기한을 잡고 월~금, 날짜로 정확히 15일간, 페이지로 끊으니 하루에 30 페이지 약간 넘게 읽으면 되겠더군요. 동물원을 미끼로 성경을 읽히는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동물원에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 영 죄송스러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이 말씀을 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다소 뻔뻔스런 바람을 담아 시작했죠. 미끼 때문인지 모두 하겠다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룹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두어시간 전후로 하루분량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약 열흘 분량의 본문을 지나가는데 일단의 아이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 애들이 도둑질이라니요! 이들 전이 그 당일이라고 하니, 오전에 성경읽고, 오후에 도둑질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성경을 읽은 셈이었습니다. 아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애들 속에 전혀 말씀이 들어가고 있지 않거나, 설교자가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고 있거나,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심각한 고민과 회의, 반성이 듭니다. 그 성경읽기는 그날로 접었습니다. 동물원은 무슨... 그럼에도 일상의 성경 암송과 저녁 예배를 하면서 몇일이 또 지났을까...

아이들이 제가 일하는 방에 가끔 들어옵니다. 수다떨고 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장난도 좀 치고, 그러다 너무 어수선 해지면 제가 내보냅니다. 그러던 어느날 애들 용돈 주는 용도로 셔랍에 보관하는 1000 리엘(액면가 쿼터입니다. 한화로 260 원 정도의 가치) 뽀뽀한 묶음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션을 때 한 50 장 정도 있었으니 액수로

치면 \$13 정도가 없어진 셈이네요. 좀 추궁해봤지만, 결국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리했을 한두명 때문에 아이들 전부에 대한 희망과 신뢰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 대해 제 방에 출입금지령을 내리고, 몇일 후에는 제 방에 CCTV 카메라를 하나 달고 말았지요. 잦은 실망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냐 싶기도 하지만, 그 끝에 주시는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참 어렵네요. 여기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 도둑질은 이 땅의 문화입니다. 제가 '문화'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사수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문화의 문제라면 양보하랴. 선교사를 위한 충고로 들었던 말이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꾸들의 세상에 제 혼자 두 눈 가진 병신같은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만... 혹은 애꾸들의 세상에 제 혼자 맹인은 아니어야 된다는 반대의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이 아니라 제가 살아본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이 땅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문화의 한심한 실상을 접합니다. 이에 반해, 대놓고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 미국과 최단 시간에 부흥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맛 본 조국 대한민국의 문화는 얼마나 공의롭고 아름다운지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를 벗어나니 한두가지 걸리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사는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있게 하는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또한 계속적인 말씀과의 동행이 없다면, 항상 유지되지는 않는 것 이라는 사실도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원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은 얼마전에 축구리그에 참가했던 15 세 이하 아이들 입니다. 잘 해보자고 연습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결국 17 개 팀 중 17 등을 했지요. 가진게 없다고 남 탓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감봉짬 고아원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하준, 민준, 하임) 선교사 드림